

동아시아 학자 눈에 비친 대승기신론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제4회 국제불교학술대회

대승불교의 개론서로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으로 평가 받는 대승기신론에 대한 한 중일 학자들의 견해를 논하는 자리가 열렸다. 금강대(총장 한광수) 불교문화연구소는 6월 19~20일 양일간 부여 백제역사문화관에서 '동아시아 불교에서 대승기신론'이라는 주제로 국제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사업단, 일본 도쿄(東洋)대, 중국의 린민(人民)대가 공동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태원, 석길갑 교수 등 국내 학자들이 이시이 고세이(石井公成), 오다 야키 히로(織田顯祐) 등 해외학자 20여명이 참여해 발표와 논쟁으로 학술적 지평을 넓혔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승기신론이 처음 동아시아에 나타난 시기의 문제부터 동아시아 불교의 중요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승기신론에 대한 관점, 나아가 오늘날 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승기신론관까지 다양한 방면의 논의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대승기신론의 발생과 근원에 대한 문제는 이날 학술대회의 주된 논쟁거리였다. 석길갑 금강대 HK교수는 일본에서 주류 학설로 정착된 지론종의 대승기신론 관

설에 대해 "적어도 사상사적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기신론이 지론종의 영향 하에서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시이 고세이 교마자와대 교수는 문헌비교 프로그램 'NGSM'을 통해 진제 스님(499~569)이 세친보살의 저작을 역경한 <불성론> 속 어법과 <대승기신론>의 어법이 유사함을 들며 이를 반박했다. 이시

기신론 발생~현대 해석 변화 다뤄

다양한 각도에서 '대승기신론' 조영 석길갑 "사상사적 지론종 영향 없어"

이 교수는 진제 스님이 <불성론>을 지을 당시 진제 스님 주변에 보리유지 스님에 의해 번역된 지론종의 경문이 이미 전수되었음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자철(李子捷) 교마자와 대학 박사는 <능가경>과 <보성론>의 사상검토를 통해 이들 경문이 기신론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음을 논증하며 이시이 교수의 주장



6월 19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석길갑 금강대 교수(왼쪽서 네번째)가 대승기신론 근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을 뒷받침했다.

중국 학자들은 종밀(宗密 780~841), 담광(曇曠 8세기 중반) 스님과 같은 근대의 스님들과 장병린(章炳麟 1868~1936), 인순(印順 1906~2005) 등 근대 불교학자들이 가진 대승기신론관을 논의하고 동아시아 불교 사상사에서 대승기신론이 끊임없이 변주되며 불교교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태원 울산대 교수는 기신론의 사상적 특징을 '연기' 키워드를 통해 고찰했다. 그는 "기신론은 여래장 연기가 아

니라 유식연기에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신론의 주류 해석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또 오다 야키히로 교수는 기신론을 진여연기로 보는 견해를 극히 실제론적인 이해라고 비판하며, "기신론은 중생이라는 현실의 측면에서 불성 혹은 여래장을 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중일 제5회 국제학술대회는 중국 린민대에서 '불교와 전통사상'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o@hyunbul.com

동국대 소장 문화재, 대거 보물로

문화재청, '봉수당진찬도' 등 4건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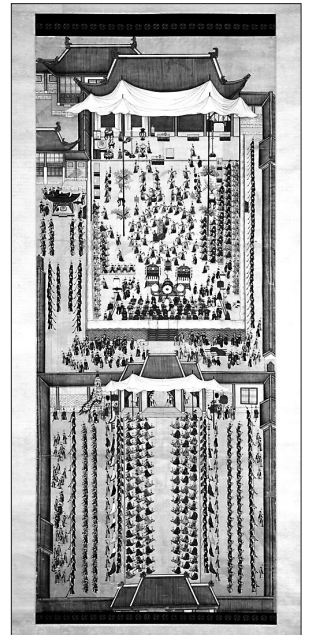
동국대가 소장 중인 문화재가 대거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饗圖)' 등 4건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봉수당진찬도는 1795년 정조가 부친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릉원(顯陵園)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했을 때의 주요 행사를 그린 8폭 병풍 '화성능행도병(華城幸幸圖屏)' 중 1폭이다. 양식적 특징은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도 후대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

봉수당진찬도는 1970년대 제일교포가 동국대 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으로, 비록 낱폭이지만 작품성은 그 어떤 8폭 병풍이나 다른 낱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역시 동국대가 소장 중인 희경부방화도(喜慶樓榜畵圖)는 1546년(명종 1) 증광시(增廣試,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임시로 실시된 과거시험) 문·무과 합격 동기생 5명이 1567년(선조 즉위) 전라도 광주 의회경루에서 만나 방화(榜畵, 과거 합격자 동기 모임)를 가진 기념으로 제작한 기념작(紀年作) 계획도(契畵圖)이다. 인물을 묘사한 필치가 매우 생기 있고 활달하며 자신감이 넘친다고 평가된다.

광개토대왕명 호우는 1946년 경주 은령총(銀鈴塚)과 함께 그 인근에서 발굴한 호우총(140호 고분·노서동 213번지) 출



봉수당진찬도

토 그릇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삼국유사에 조성 내력이 보인다. 이에 의하면 644년(선덕여왕 13)에 도중사(道中寺)의 생의(生義) 스님이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자신을 깨어 안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남산 북봉을 찾아 삼존상을 발굴해 삼화령(三花嶺)에 봉안했다고 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 서양철학의 만남 자리 열린다

미밋아카데미, '21세기, 불교를 철학하기' 논길

불교와 서양철학이 한 자리에서 만난다. 미밋아카데미(대표 이학중)는 7월 1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지'에서 '21세기, 불교를 철학하다' 연속 강좌를 개최한다.

연속강좌에서는 철학자 21명이 참여한다. 서양철학의 대가들로 알려진 학자들이 나서 불교와의 접점을 모색한다. 대표적인 학자를 소개하면 이석재 서울대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10년여 간 교수로 재직하다 서울대에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서양근대철학과 형이상학의 전문가이자 세계 철학계에서 버클리-홍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박찬국 서울대 교수는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에서 철학박사를 받았다. 나체와 하이데거를 비롯한 실존철학 전문가로서 베스트셀러인 <초인수업>으로 유명하다. 철송학술상, 원효학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에는 불교와 서양철학을 비교하는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권오민 경성대 교수는 '아비달마 구사론'부터 '순정리론'까지 부파불교의 핵심

을 10년여에 걸쳐 완역한 국내 유일한 학자이다. 아비달마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불교 공판학의 대가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의 교리를 쉽게 풀어서 일반에 전달하기도 유명하다. 올해의 논문상, 불이상, 청송학술상, 올해의불서10 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박창환 금강대 교수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최첨단의 학문을 익히고 들어온 대표적인 신진 불교학자로 아비달마 및 산스크리트어를 전공했으며 현재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미밋아카데미의 이번 강좌는 동아시아와 한국의 불교라는 자리에서 출발해 동서양의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철학적 지평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강좌의 참가비는 2만 원이며, 모든 강좌를 수강할 시에는 10% 할인이 적용된다.

이학중 미밋아카데미 대표는 "서양철학과 불교를 낱말이 비교,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10)5575-7010 노덕현 기자

"호흡 그 자체만으로 중요 수행"

박성식 동국대 교수, 한의학연구소 세미나서

동국대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와 불교문화연구소는 6월 13일 동국대 충무로 영상센터에서 '심신치유를 위한 불교와 사상의학의 만남'을 주제로 융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성식 동국대 분당 한방병원 교수(사진)가 '수식관 호흡이 사상체질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박 교수는 "호흡은 마음과 신체의 중간을 이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며 "부처님도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질 정도로 호흡 그 자체가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식관 호흡은 평소 호흡에 비해 호흡수나 평균 심박수를 안정시킨다"며 "호흡수는 들숨집중호흡에서, 평균심박수는 날숨집중호흡에서 안정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 "평소호흡보다 수식관 호흡은 호흡과 심장의 활동을 안정시키는 반면, 심박변이도와 연관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에서 이뤄진 '유식불교와 심



리치료'에 대한 연구논문 경향을 분석한 발표가 있었다. 박 교수는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교수에 따르면 이를 주제로 한 최초 연구는 1981년 시작돼 2014년 말까지 27편의 연구논문과 19편의 학위논문이 발표됐다. 박 교수는 "유식불교 전체를 다뤄보고 심리치료와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식의 특정 내용에 집중해 구체적인 적용을 논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내용을 실용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기운 동국대 교수가 천태지관 수행을 심리치료 기법에 적용하기 위한 시험적 연구에 대해, 정준영·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부처님의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불교의 심리치료적 특징을 모색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문학과종교학회, '젠더와 종교'

한국문학과종교학회(회장 양병현 상지대 교수)는 7월 8~9일 서울 신촌 서강대 마태오관에서 제2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영국과 캐나다, 인도 등 6개국 학자들이 참석해 '젠더 스토리와 종교'를 주제로 열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캐나다 오타와 대의 나오미 골든버그 교수를 비롯해 영국 캔터베리 크라이스트 처치대의 버커드 쉬어러 교수, 한국에서 문학과 종교분야에서 활동하는 다니엘 키스터와 안토니 명예교수 등이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미얀마 불교연구에 함께 협력"

동국대 선연구소, 미얀마 시따구국제불법학과와 협약 체결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와 미얀마 시따구 국제불법학과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6월 12일 연구소에서 미얀마 시따구 국제불법학교(총장 아신 나나사라 스님)와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소와 국제불법학교는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 학생과 교수 및 연구 자료의 교환, 국제적 프로그

램의 공동 참여, 학술회의 및 워크숍 공동 조직 등에 협력한다.

진월 스님은 "앞으로 시따구 국제불법학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불법학교 총장 아신 나나사라 스님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큰 종파인 셰윈(Shwegyin)종 부주종으로 미얀마 지카잉, 양곤, 만달레이에 시따구 국제불법학교를 설립하여 승가교육에 힘쓰고 있다.

노덕현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독,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사주팔자)이 어떤 것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법(秘法)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무속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어려움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 책자 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천족,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애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전법사

- 책자 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점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전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